

1-28-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에베소서 5:1-33

말씀제목: 그리스도와 신부 된 교회가 혼인하여 한 몸 이루는 위대한 신비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와 신부 된 교회가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루는 위대한 신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난 육천 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신비는 비밀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비밀스러워서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위대한 신비는 신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으로서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앞으로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롬 5:14)

또한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고전 15:45-47)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통하여 하신 일을 통해서 둘째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이 하실 일을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창 2:21-24)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의 교회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대한 신비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엡 5:29)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위대한 신비라고 증거하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위대한 신비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비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엡 5:15-21)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 위대한 신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됄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깨끗케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엡 5:22-28)

성령께서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솔로몬과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인 술렘 여인의 사랑 노래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교회와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루며 하늘로 함께 가게 되는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넝쿨은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솔 2:8-13)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좁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고후 11:1-2)

그는 또한 이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째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8-30)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그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서서 하늘에서 혼인식을 치르실 것입니다.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말씀들이라.’고 하더라.”(계 19:7-9)

오래 전 성령 안에서 이 광경을 미리 본 시편 기자는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흠은 의로운 흠이니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니. 당신의 모든 옷에는 상아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니.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니.”(시 45:3-9)

시편 기자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어 하늘문을 여시고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기 직전에 오필의 금으로 장식한 자신의 신부와 혼인식을 하는 장면을 보고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